

# 인도의 거리



이상곤

30519hannover@gmail.com

인도는 크기가 우리의 30배가 넘고 인구도 우리의 약 23배 이상(약 12억)이 되는 거대한 나라로 33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헌법이 인정하는 언어가 22개)하는 나라지만 평균 소득은 아주 낮아 먹고 살기에 힘이 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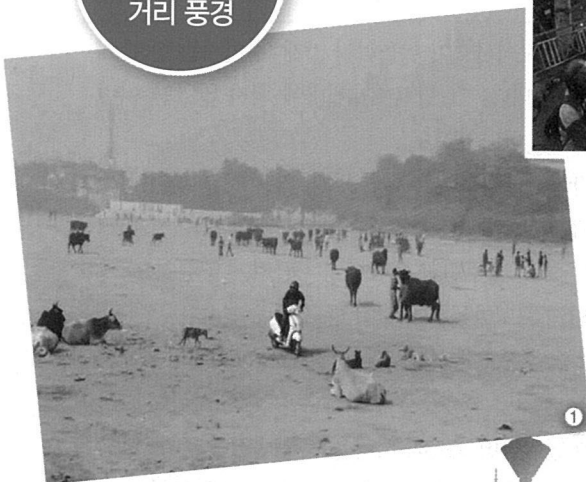
기원전 2~6세기경에 힌두교가 불교를 밀어내고 기반을 완고하게 함으로서 거의 국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인도 전체 인구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수도인 Delhi공항을 빠져 나오는 순간부터 역시 먹고살기 힘든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공항에서 버스로 시내쪽

으로 가는 동안(오전 시간)에 도로변은 물론 시내 구석구석이 쓰레기장이라는 생각이 앞섰다.

크고 작은 도로변을 따라 셋길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온갖 쓰레기, 이들이 이곳저곳으로 바람에 날라 다니는 모습, 흐르는 강물에도 가득 찬 쓰레기, 특히 물이 오래 고여 있는 곳에서는 악취를 풍기는 풍경, 그리고 쓰레기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곳에는 소를 위시하여 개, 돼지, 고양이 등이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울러 그 거리에서 온갖 상인들이 널려있어, 특히 먹는 장사들과 뒤섞여 보행자는 자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동물의 분변(특히 소똥)을

사진으로  
보는  
거리 풍경



- ① 어느 광장에서
- ② 시내의 도로
- ③ 시내의 거리에서
- ④ 시외 도로에서
- ⑤ 고속도로변에서



밟게 된다는 사실, 또 변화가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리의 모습(가난한 나라는 어디를 막론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아수라장이라고 할까?) 등 옛날에 텔레비전으로 보았던 모습을 새삼 연상하게 하였다.

수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소나 다른 동물들이 도로에서 활보하거나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소들이 아무데고 유유히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에 신경이 가서 구석구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힌두교가 신성시하고 있는 소는 예전(지금도 시골에서는 일소로 논밭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되는 동물임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우유(식용)나 분변(똥감) 그리고 가죽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고기는 먹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힌두교인들의 습관이며 전통으로 법보다 더 무서운 철칙이란다. 혹시라도 소고기를 먹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나의 질문에 “그것을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법적으로도 사형감이다”라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신성시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다루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소들이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해도 누구하나 짜증을 부리거나 역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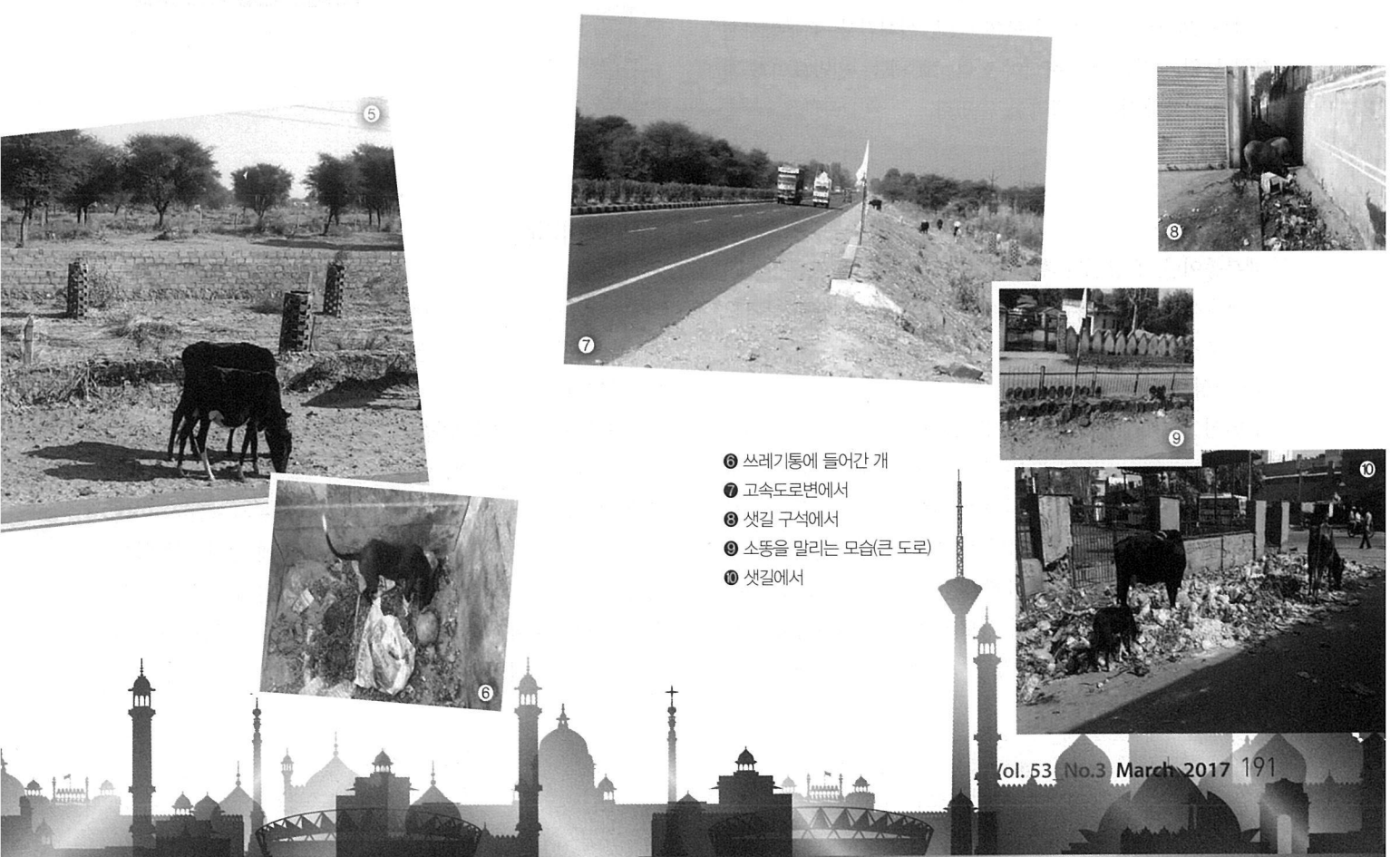
그래서 필경에는 소들이 아무 곳에서나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상태로 시체가 방치되어 새(특히 곤도 등 새매)나 다른 동물이 시체를 먹어치우게 되었다고 한다.

근래에 이르러 그러한 새들이 점점 줄어들어(근래에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이는 주위의 위생환경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사료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시체를 사람들이 도시주변 외지로 옮겨놓기도 한다고 한다.

요즘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들은 대부분이 어린소나 늙은 소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사육비에 곤란을 느끼는 사람들의 탓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예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행이 병약한 거리의 소들은 국가의 예산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식가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살아가기에 아주 힘든 상황으로 평균 수명이 고작 60여세에 불과하지만 우리 관광객들에게 보이는 종교이념과 상통하는 친절한 그들의 행동에 인간적이고 아시아적인 취향을 느낄 수 있었던 종교의 미덕을 느낄 수 있어 어느 정도나마 흡족한 마음으로 인도를 떠날 수 있었다. ▽



⑤ 쓰레기통에 들어간 개  
 ⑦ 고속도로변에서  
 ⑧ 셋길 구석에서  
 ⑨ 소똥을 말리는 모습(큰 도로)  
 ⑩ 셋길에서